

원희룡 장관, “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공기관 만들 것”

- 5일 세종청사에서 ‘산하 공공기관 청년 직원 소통미팅’ 개최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5일(월)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‘산하 공공기관 청년 직원 소통미팅’을 개최하여, 청년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.
 - 이번 소통미팅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미래를 견인할 청년 세대가 업무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여 기관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, 국가철도공단·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토부 산하 9개 공공기관*의 ‘청년 조직’에 속한 18명의 청년 직원들이 참석했다.
 - * 국가철도공단(KR), 국립항공박물관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KAIA),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(KCESI), (주)에스알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코레일 네트워크, 한국국토정보공사(LX), 한국공항공사(KAC)
 - 한편, 국토교통부도 새로운 시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 청년 직원들로 구성된 ‘MZ보드’를 운영 중이며, 이번 산하 공공기관 청년과의 만남을 계기로 이러한 혁신의 움직임을 산하기관에도 공유하고 확산해나갈 계획이다.
- 원 장관은 “국토부 산하기관의 미래 주역인 청년 직원들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청년 직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, “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국토부가 앞장서서 개선하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 - 오늘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 “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희망과 자부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원 개인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강화 등 업무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한다”며, “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적극 반영되고 앞으로도 국토부 청년 조직과 지속 소통하길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 - 이에 원 장관은 “청년 의견이 반영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국토부 산하기관을 청년 직원들이 보람과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는 ‘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관’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”라고 화답했다.

2023. 6. 5.

국토교통부 대변인